

특별기획_‘나’를 변화시키는 『어린 왕자』 인문 여행4

『어린 왕자』의 음악 세계

송태효
어린왕자 인문학당 대표

우리는 마음의 음악을 듣는다. 마음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겐 멋진 일이다. - 생텍쥐페리

생텍스의 음악에 대한 열정

생텍스의 외가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전통 있는 음악가 집안이었다. 그의 외증조부 에마누엘 드 폰스콜롱브(Emmanuel de Fonscolombe, 1810~1875)는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 성가대 지휘자이자 작곡가로 명성이 높았다. 외조부(Charles de Fonscolombe) 역시 자녀들에게 솔페지오(Solfège)와 성악을 가르쳤으며, 생텍스의 모친 마리 부아예 드 폰스콜롱브(Marie Boyer de Fonscolombe)(1875~1972)는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여 자녀들의 음악 교육에 열정을 쏟았다. 생텍스가 외증조모 소유의 생모리스드레망(Saint-Maurice-de-Rémens) 성채에서 머물던 어린 시절, 모친은 일주일에 한 번 리용 오페라단 지휘자의 딸인 안느-마리 폰세(Anne-Marie Poncet)를 집으로 초대하였다. 그녀의 지도로 생텍스와 남동생 프랑수아는 바이올린을, 두 누나와 여동생은 피아노와 성악을 배웠다. 이들은 슈만, 슈베르트, 마스네, 포레, 레이날도 한(Reynaldo Han, 1874~1947)의 작품과 18세기 고전 악곡을 배우고 모친의 지휘로 바흐와 글루크의 가곡을 불렀다.

해군사관학교 입시 준비를 위해 파리에 머물던 20대 초반에도 생텍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사촌 이본느 드 레트랑주(Yvonne de Lestrangle)가 들려주는 쇼팽의 곡에 푹 빠진 생텍스는 매일 삼십 분씩 바이올린을 연습하였다. 특히 그는 「녹턴 8번(Nocturne No. 8, Op. 27 No. 2 in D flat)」의 장엄함에 압도되어 자신의 연주 수준에 자부심을 느낄 때까지 그 까다로운 곡을 열심히 연습하였다. 그의 성악 실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1919년 해군사관학교에 입시에서 탈락하자 그는 생계를 위해 헨리크 시엔키에비치(Henryk Sienkiewicz, 1846~1916)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장 누게(Jean Nougès, 1875~1932)의 오페라 『쿠오바디스(Quo Vadis)』(1909)에 수 주간 출연하기도 했다. 성년이 된 생텍스는 주로 바리톤 음색으로 노래를 불렀다.



그림 1 지인들과 바이올린 연습 중인 생텍스¹⁾

생텍스는 작곡에도 관심이 많아 애가적 분위기를 띠는 자신의 곡에 대단한 애착을 보였다. 피아노의 불협화음에도 매력을 느끼던 그는 1821년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Rabat)에 체류하던 시절 문학과 음악에 조예가 깊은 동료 마르크 사브랑(Marc Sabran)과 프랑크 프리우(Franck Priou) 대령 집에서 드뷔시와 라벨의 곡을 자주 연주하곤 했다. 그는 1926년 무렵 자신의 근무지이던 스페인 알리칸테(Alicante)²⁾의 카페에 설치된 자동피아노에서 흘러나오는 장엄한 곡을 즐기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고가구를 떠올려주는 부드럽고 온화한 축음기의 고색창연하고 대중적인 멜로디를 즐기기도 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자동 전축을 구입하여 르네상스 고음악, 17세기 음악과 18세기 곡을 즐겼다.

생텍스는 현대음악에도 관심이 많았다. 어디에 가나 그는 드뷔시의 5막짜리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장드(Pelléas et Mélisande)』(1902) 디스크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명곡 『봄의 제전(Le Sacre du printemps)』(1913)을 즐겨 듣고, 카페 레 뒤 마고(Les Deux Magots)에서 만난 조르주 오릭(Georges Auric)과 아르튀르 오네게르(Arthur Honegger) 같은 젊은 작곡자의 작품도 즐겼다. 생텍스는 당시 유럽에 소개된 미국 재즈에도 큰 관심을 보였으며, 쿠르트 바일(Kurt Weill, 1900~1950) 같은 작곡가를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사촌 앙드레 드 폰스콜롬브(André de Fonscolombe)와 함께 관람한 브레히트의 『서풍짜리 오페라(L' Opéra de quatre sous)』(1928)를 위해 쿠르트 바일이 작곡한 기이한 음악을 높이 샀다. 하지만 그는 고전 음악을 더욱 사랑했는데 그가 사랑한 음악가는 바흐, 헨델 그리고 모차르트였다. 이들의 음악이 바로 어린 시절을 떠올려주었기 때문이다.

1) <http://www.antoinedesaintexupery.com/la-musique-qu%E2%80%99il-joue>

2) 지중해에 면한 스페인 주요 항구, 발렌시아 자치 지역 알리칸테주의 주도.



그림 2 Claude Debussy, 『Pelléas et Mélisande』 (1902), DECCA



그림 3 Igor Stravinsky, 『Sacre du printemps』 (1913), DECCA,

생텍스의 음악 철학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여우의 비밀은 듣기에 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생텍스는 음악 역시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미국에서 2년간 체류하다 1943년 4월 『어린 왕자』를 출간한 생텍스는 곧바로 옛 전우들이 집결해 있던 튀니지의 2/33 비행 중대에 합류하기 위해 뉴욕에서 출발하여 삼 주간의 항해 끝에 그해 5월 알제리 수도 알제(Alger)에 도착하였다. 드골 정부는 명예 회복을 위해 튀니지의 옛 비행 중대로 복귀하려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도움을 청하는 생텍스에게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폈다. 심신이 지쳐있던 생텍스는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오랑(Oran)³⁾을 방문하고 알제(Alger)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프랑스 동부 출신의 23세 여인과 만난다. 첫 만남에 그녀에게 압도된 생텍스는 자주 그녀를 만나고 『어린 왕자』의 인물이나 데생에 관한 작가의 애뜻한 감정을 담은 편지들을 써서 보냈다. 편지에서 생텍스는 그녀를 어린 왕자의 친구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오랑 주재 프랑스 적십자 관리의 부인이던 그녀의 침묵에 생텍스는 애를 태웠다. 간절한 기다림, 다가가고 싶은 기대감, 아무것도 아닌 여인의 미소와 말을 떠오르게 하는 신선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텍스는 간절함에서 열리는 내면의 음악 세계를 발견하고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는 마음의 음악을 듣는다. 마음으로 음악을 듣는 것은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겐 멋진 일이다.

- 생텍쥐페리, 『낮선 여인에게 쓴 편지(Lettres à l'inconnue)』, 갈리마르, 2008⁴⁾

마음의 음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의 음악은 어디서 들려오는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간절함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조화의 울림을 듣는 것이다. 조화의 울림을 듣는 것은 보들레르의 유명한 소네트 「상응(Correspondance)」에서 시인이 색에 답하는 소리의 울림을

3) 카뮈의 소설 『페스트(Peste)』의 무대로 유명한 도시.

4) <http://lecarrejaune.canalblog.com/archives/2015/11/08/32900078.html>

듯듯, 운동주 시인의 「서시」에서 시인이 ‘있세에 이는 바람’의 울림을 들듯, 『어린 왕자』에서 서로 답하는 별과 꽃과 물이 화답하는 울림의 소리를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로야. 아저씨가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고 치자고. 밤에 하늘만 바라봐도 감미로울 거야. 별마다 꽃이 필 테니.”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로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은 것이었어. 도르래랑 밧줄 때문에…기억하지…참 좋았잖아.” - 『어린 왕자』 제26장 부분

축제처럼 달콤한 이 물은 별빛 아래로의 행진, 도르래가 내는 노랫소리 그리고 비행사가 두 팔로 이룬 필사적 노력의 소산이다. 비행사를 우물로 인도한 어린 왕자는 그가 두레박에 담아 건네준 물을 음악에 비유한다. 그에게 음악은 살아있는 정신의 척도다. 음악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 육신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어린 왕자 덕분에 물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찾은 비행사는 밤하늘의 빛나는 별을 바라본다, 그는 모든 별에서 들려오는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듣는다. 소행성 B612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어린 왕자도 모든 별이 들려주는 도르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도르래 소리와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마음의 음악이다.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보이지 않는 샘물처럼 음악은 인간의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보이지 않는 샘물이다. 창공의 꽃과 별과 물과 음악이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며 살아 있게 한다.

생텍스에게 음악은 인간의 선형적 본성이며 소중한 보물이지만 천박한 경험과 더불어 잃어가는 마음의 보물이다. 누구나 모차르트로 태어난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쓰레기 같은 음악에 치인 이 모차르트는 죽어 간다. 불필요한 것을 원할수록 마음의 음악은 멀어져 간다. 생텍스는 부루주아적 안정과 타성, 숨 막히는 관습에 갇힌 채 바람과 별에 맞서 천박한 담벼락을 쌓고 만족해하는 어느 관료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이젠 자네 몸을 이루는 점토조차 말라붙고 급기야는 딱딱하게 응고해 버리고 말았지. 그러니 자네 안에 잠들어 버린 음악가나 시인 혹은 아마도 맨 처음 자네 속에 살고 있었던 천문학자를 일깨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게지. - 생텍쥐페리, 『사람들의 땅 (Terre des Hommes)』, ⁵⁾ 제1장 「항로」 부분.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어린 왕자로 돌아간다면 언제라도 깨어나 노래 부를 수도 있다. 생텍스는 이미 『어린 왕자』 이전에 발표한 이 소설에서 어린 왕자를 출현시키고 있다. 어린 왕자는 다른 행성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왕자였다. 소설 마지막 장에는 프랑스에서 이주 노동자로 일하다 폴란드로 추방되어 삼등칸에 몸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어느 부부 이야기가 나온다. 부모 사이에 끼어 잠든 어린애의 사랑스러운 얼굴이 야간등 불빛 아래로 드러나자 생텍스는 그 빛나는 이마와 귀엽게 삐죽 내민 입술을 들여다 보며 이렇게 말한다.

이 얼굴은 음악가의 얼굴이라고. 그것은 어린아이로서의 모차르트란 말이지. 생명의 아

5) 『인간의 대지』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생텍스의 소설.

름다운 약속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동화에 나오는 어린 왕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 생텍쥐페리, 『사람들의 땅(Terre des Hommes)』, 제8장 「사람들」 부분.

생텍스는 어린 모차르트도 다른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금형 기계에 찍혀 카페콘세르6)의 악취 속에서 들리는 썩은 음악을 자신의 큰 기쁨으로 즐기게 될 것을 염려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형 선고 받은 모차르트가 되는 것이다. 생텍스에게 음악은 무엇보다도 모차르트의 음악이다. 생텍스는 모차르트의 음악이 다른 모든 삶에 유용하다고 믿고 있다. 프랑스 피아니스트이자 작곡자인 미카엘 레비나(Michaël Levinas)는 어린 왕자가 보여주는 신비함을 모차르트 수준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생물학자가 모차르트를 듣는 것을 비난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서로 만나고, 모든 관계는 앞에 도움을 준다(아마도 전원생활이 뉴턴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리라). 그리고 모차르트는 생물학에 기여할 수 있다. 사람은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선천적으로 타인과 경계 지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 생텍쥐페리, 「수첩(Carnets)」, 『Œuvres complètes』, 갈리마르, 1953, 549p.



그림 4 Claudio Monteverdi,
『성모 마리아의 저녁 기도,
1610(Vespro Della Beata Vergine,
1610)』, Harnoncourt, WEA.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43)에게 보내는 생텍스의 찬사에서 도 알 수 있듯 음악은 사람이 혼자서 아님을 깨닫게 해준다. 음악이 공통으로 상기시켜주는 어떤 인상과 추억이 서로 다른 인간을 함께하게 한다. 음악을 위한 음악이 아닌 ‘사람을 위한 음악’이 지니는 가치는 바로 우리를 함께함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다. 물론 진실을 조건으로 가능한 길이긴 하지만 말이다. 연대감 다시 말해서 어린 왕자의 멘토 사막여우가

6) 18세기 프랑스에서 발생한 음식을 들면서 연주를 감상하는 프랑스 음악 레스토랑.

깨우쳐 준 관계맺음과 길들임의 의미도 이것이다. 인간적 종교와 예술의 궁극이 그러하듯이.

몬테베르디 :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고독과 불안으로 고통 받던 사람마저 포용하는 이차분한 집합.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위대한 음악 속의 존재이기에). 종교가 그러하며,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그러하다. 이렇게 나는 이미지들을 다시 모으고 진정시킨다. - 생텍쥐페리, 「수첩(Carnets)」, 『Œuvres complètes』, 갈리마르, 1953, 630p.

생텍스에게 헌정된 음악

생텍스가 파리에 머물던 시절 만난 이탈리아의 전위 음악가 루이지 달라피콜라(Luigi Dallapiccola, 1904~1975)는 『야간 비행(Vol de Nuit)』(1931)을 단막극 오페라로 각색하고 작곡하였다. 이 오페라는 1940년 5월 18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초연되었는데 아쉽게도 생텍스는 공연에 참석할 수 없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이 벨기에를 폭격하자 전역 조종사 생텍스도 소집 명령을 받고 라마른느(La Marne)의 2/33 비행 중대로 복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후 1976년에는 러시아 작곡가 레프 크니페르(Лев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Книппер, 1898~1974)의 오페라 『어린 왕자(Malenkiy prints)』가 초연되었다.



그림 5 레이첼 포트만(Rachel Portman)의 이 막 오페라 『어린 왕자(The Little Prince)』 (2003)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의 의뢰를 받아 레이첼 포트만(Rachel Portman)이 작곡한 오페라 『어린 왕자(The Little Prince)』가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에서 2003년 5월에 초연되었다. 이후 밀워키, 보스턴, 뉴욕, 켄터키, 샌프란시스코, 털사(Tulsa), 산타페 등 미국의 여러 극장에서 공연되어 관심을 끌었다. 영국에서는 BBC가 영화로 만들어 2004년 11월에 방영하였다. 원래 어린 왕자 역을 소프라노가 맡았으나 BBC 영화에서는 보이스 소프라노가 맡았으며 비행사 역은 바리톤이 맡았다. 영화 『엠마(Emma)』(1996)의 OST로 여성 최초 아카데미 영화 음악상을 받은 레이첼 포트만(Rachel Portman),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으로 토니상을 받은 무대 디자이너 마리아 비욘슨(Maria Björnson),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 프란체스

7) 크리스토프 킬리앙, 『어린 왕자 백과사전』(강만원 역), 평단, 2016.

카 잠벨로(Francesca Zambello)가 협업하여 창조해 낸 작품은 2014년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예술의 전당 CJ 토월극장에서도 공연되었다.

독일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니콜라우스 샤프(Nikolaus Schapfl, 1963~)도 오페라 『어린 왕자(The Little Prince)』를 작곡하였다. 1990년부터 기획에 들어가 1998년 잘츠부르크에서 오디션이 열리고 2006년 『어린 왕자』 출간 60주년을 맞아 공연되었으며 이후 프랑스어로 각색되어 공연되었다. 니콜라우스 샤프는 작품에 생동감을 주기 위해 1944년 생텍스와 함께 지중해에 추락한 비행기 P-38 라이트닝과 같은 기종을 무대에 올려 감동을 더 해주었다. 2014년 스위스 로잔에서는 피아니스트 미카엘 레비나(Michaël Levinas)의 오페라 『어린 왕자(Le Petit Prince)』가 공연되었다. 앞서서도 말했듯 그는 『어린 왕자』의 작품성과 의의를 모차르트의 음악 수준으로까지 상징한 음악가였다.



그림 6 니콜라우스 샤프(Nikolaus Schapfl)의 오페라 『어린 왕자(The Little Prince)』(2006)

아마도 생텍스의 모차르트에 대한 존경심을 익히 알고 있었으리라. 무엇보다 생텍스의 『어린 왕자』 정신을 잘 살린 걸작은 2002년 프랑스의 유명 작곡가 리샤르 코시앙트(Richard Cocciante)가 카지노 드 파리(Casino de Paris)에 선보인 뮤지컬 스펙터클 『어린 왕자(Le Petit Prince)』일 것이다. 『노트르담 드 파리(Notre Dame de Paris)』(1998)의 작곡가로 유명한 리샤르 코시앙트의 창의적 음악혼이 담긴 이 뮤지컬 『어린 왕자』에는 『노트르담 드 파리(Notre Dame de Paris)』에서 부주교 클로드 프롤로(Claude Frolo)역을 맡아 열연한 다니엘 라부아(Daniel Lavoie)가 비행사 역할을 맡아 한 층 더 심화한 열정을 토로해냈다.

아예 자신의 연주 그룹 이름에 생텍스의 이름을 사용한 트리오도 있다. 2012년 결성된 트리오 생텍쥐페리(Trio Saint-Exupéry)는 작가이자 비행사였던 생텍스를 통해 시와 휴머니즘의 모델을 발견한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세 프랑스어권 국가의 음악가, 첼리스트 카미외 토마(Camille Thomas), 피아니스트 베아트리스 베뤼(Béatrice Berrut), 바이올리니스트 로렌즈 가토(Lorenzo Gatto)가 음악과 비행에 대한 열정으로 결성한 연주팀이다. 베아트리스와 로렌즈는 두 사람 모두 조종사 자격증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들은 일상으로부터 일탈을 꿈꾸는 생텍스의 천체에 대한 열정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유럽 무대는 물론 이스라엘과 남미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의 『어린 왕자』에 대한 열정 역시 대단하다. 스웨덴 팝 그룹 웹스트

라르나(Webstrarna)는 1984년 생텍스가 마지막 임무 시 탑승했던 비행기 P-38 라이트닝 기종을 타이틀로 한 「P-38」을 발표하였다. 노르웨이의 프로그레시브 아트 락 밴드 가스파초(Gaspacho)는 생텍스가 사막에 불시착하여 구조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노래로 읊긴 앨범 『틱탁(Tick Tock)(2009)』을 발표했다. 미국의 락밴드 와이드스프레드 패닉(Widespread Panic)의 앨범 『더티 사이드 다운(Dirty Side Down)』(2010)에 실린 곡 「생텍스(Saint-Ex)」는 호르스트 리페르트(Horst Rippert)에 의해 격추당해 지중해에서 죽은 생텍스를 추모하는 곡이다. 그룹의 일원인 존 벨(John Bel)과 그의 부인 로라(Laura)는 『어린 왕자』 애독자로서 그동안 실종자로 간주하던 생텍스가 지중해 상공에서 격추당한 사실을 접하고 이 곡을 만들었다.

러시아 포크록 밴드 멜니차(Melnitsa)는 자신들의 앨범 『연금술(Alchemy)』(2015)에 「생텍쥐페리 블루스(St. Exupery Blues)」를 실었다. 러시아의 바리톤 성악가 에두아르드 아나톨예비치 힐(Эдуард Анатольевич Хиль, 1934~2012)이 부른 「삶의 행성에서(On the Planet of the Living)」는 『사람들의 땅』에서 생텍스가 강조한 인간들의 연대감을 주제로 한 성악곡이다. 버클리 음대 출신의 대만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하진진(Chen-Chen Ho)의 『어린 왕자와의 조우(An Encounter with the Little Prince)』(2012)도 빼놓을 수 없는 명반으로 『어린 왕자』의 다양한 마음의 수사를 뉴에이지 음악으로 감명 깊게 풀어내었다.



그림 7 Chen-Chen Ho,
『An Encounter with the
Little Prince』(2012), 콘
텐츠 코리아.

생텍스에게 음악은 곧 인간적 삶의 척도이다. 어떤 음악을 왜 듣는가 하는 문제는 취향의 수준을 넘어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가까운 음악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음악의 종류와 기능이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진정성을 무시하는 음악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시에 관한 고결한 생각을 떠올려주는 시가 훌륭한 시이고, 회화에 대한 고결한 생각을 떠올려주는 회화가 훌륭한 회화이듯, 좋은 음악은 음악에 대한 고결한 생각을 떠올려준다.

생텍스는 중세 고음악을 비롯하여 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의 특성을 파악하고 즐겼다. 특히 그는 모차르트 작품에서 당대 음악의 고전성과 현대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비행과 문학에 대한 열정을 결합시켰다. 그에게 음악은 길들임과 관계맺음의 통로이다. 진정한 연대감을 표현하는 음악이라면 장르를 불문하고 싸구려 음악은 없다. 간절함을 담은 진실한

음악은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와 남을 하나로 맺어준다. 유행을 선도하는 대중음악을 탓할 필요도 없다. 관습적 클래식 음악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 생텍스에게 헌정된 많은 음악은 장르를 불문하고 그를 사랑하는 다양한 인간을 하나로 묶어 주고 있지 않은가? 어린 왕자가 비행사에게 선물한 별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간절함으로 진실의 세상이 들려주는 마음의 음악에 나를 열어 본다. 오늘 밤도 무한한 창공을 무대로 별들이 연출하는 오케스트라에 마음의 귀를 열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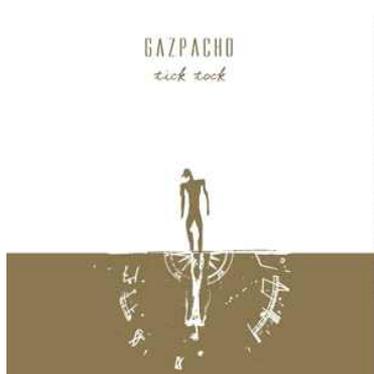


그림 8 Gazpacho, 『Tick Tock』(2009), Thoughts Productions.
 그림 9 Widespread Panic, 『Dirty Side Down』(2010), ATO Records.



그림 10 Melnitsa, 『Alchemy』(2015), Navigator, Russia.